

2020년 서교예술실험센터 공동운영단 기획사업  
**<ARS: 탈(脫)연극> 참여예술가 결과 발표**

서교예술실험센터 공동운영단 기획사업 <ARS: 탈(脫)연극>에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최종 참여예술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I 심의 개요**

- 심의명: 2020년 <ARS: 탈(脫)연극> 참여예술가 모집
- 심의대상: 총 34건
- 심의절차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를 통해 부적격자 배제

· 가택 및 토론 서류 심사  
 · 공동운영단 심사

· 공동운영단의 최종 토론심사

· 최종 선정자 의결 : 총4인(팀)

- 심사위원 구성: 서교예술실험센터 8기 공동운영단

| 연번 | 이름  | 활동 분야    |
|----|-----|----------|
| 1  | 김나현 | 시각예술 기획  |
| 2  | 김말음 | 시각예술 기획  |
| 3  | 윤찬목 | 뮤지션 및 기획 |
| 4  | 이강호 | 공연예술 기획  |
| 5  | 황유탉 | 공연예술 기획  |

- 심사기준

| 심사기준(가중치) |                | 세부 평가내용  |
|-----------|----------------|--|
| 사업목적      | 자기발전의 가능성(30%) | -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실험인가?                                 |
| 사업내용      | 실험의 참신성(30%)   | - 제안된 실험의 예술성·참신성이 어떠한가?                           |
| 사업실행      | 프로젝트 이해도(40%)  | - 예술가 개인의 예술관이 잘 구축되어있는가?<br>- 탈 장르에 대한 이해도가 어떠한가? |

## ○ 선정 결과

| 연번 | 접수번호        | 지원자(팀명)      | 연락처 뒷 번호 |
|----|-------------|--------------|----------|
| 1  | M-20-4-0166 | 곽*원          | 9380     |
| 2  | M-20-4-0172 | 박*영(베*티*)    | 4468     |
| 3  | M-20-4-0178 | 오*택(스*디*공*소) | 3189     |
| 4  | M-20-4-0179 | 최*우(3*S*)    | 6611     |

## ○ 심사총평

(A) 서교예술실험센터 공동운영단 기획사업 <ARS: 탈(脫)연극>은 '탈(脫)연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과정을 실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설계했습니다. 지원해 주신 분들께서 연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양하고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발표를 위한 과정이 아닌 여러 번의 안전한 실패를 경험해 보며, 그 이상으로 확장되어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B) 지원하신 동료 예술가분들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연극'이라는 장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고해보려는 시도들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기존에 유지되었던 연극의 요소들(현장성, 공간성, 시간성, 관객과 배우의 관계, 희곡의 의미 등)을 해체해보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다수였다는 점에서 동시대의 예술가들이 어떤 지점을 고민하고 극복해나가려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C) '연극이란 무엇인가, 고유성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하는가, 해체시켜 변화해야하는가, 변화 된 그것은 연극이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팬데믹에 의해 다양한 변화를 감내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유심히 바라본 지점은 고민의 흔적들과 그것을 나의 언어로 얼마나 구축했고,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이 시간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연극을 넘어 이 시기를 이겨내는 우리의 모습까지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D) 사람들과 교류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이기에, 기존 연극과 현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만의 생각을 구축하였는지, 그리고 그 생각을 어떻게 잘 전달하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새로운 형태의 '탈(脫)연극'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E) 관객과 연극이 전처럼 마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극을 이어가려는 지원자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버추얼 레지던시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이번 사업에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